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의 실태 분석연구 -영월군의 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

오승하*, 조성제
¹동방대학원 대학교 교육학과

Investigation into the actual condition of the Cultural Welfare System for the Disabled

-Focus on a Museum and Art Museum in Youngwol-gun-

Seung-ha Oh^{*}, Sung-Je Cho¹

¹Department of Education at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14년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강원도 박물관고을특구 영월군에 소재하는 문화복지시설 중 공·사립 21관의 박물관을 대상으로 실태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연구척도문항을 중심으로 박물관 문화복지시설의 현장조사와 관장면접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가 문화·예술·여가활동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문화향유는 생활만족도, 삶의 질에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문화향유의 권리를 갖는 장애인관람객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의 환경구축,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관람시스템개발 및 보완, 편의시설구축, 재정적지원 등 개선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 of the cultural welfare system for the disabled. The survey was completed by 21 public and private museums at a cultural welfare center in Gangwon-do, Yongwol-gun, specialized for museums only between 1 June and 31 July 2014. The study scale questions were analyzed by field surveys in cultural welfare centers and interviewing the museum director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cultural welfare service effects on the controlling culture, art and leisure activities for the disabled. Second, cultural enjoyment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This study provides a database to improve policy regarding environmental construction, various program developments, visiting performance system development, and supplement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disabled audience as a member of society.

Key Words : Culture, Museum, Service, The disabled, Welfar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이 물질적인 측면이 아닌 정신적 및 문화적 측면까지 고려한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다. 즉, 산업사회를 통한 경제발전과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

어지면서 사회복지 인프라도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특히 문화적 복지욕구는 일반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모두가 문화향유와 활동 및 즐거움을 평등하게 누리고 싶어 한다.

문화적 복지욕구는 문화적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및 저소득층의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의 수요와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복지 욕구 중 핵

*Corresponding Author : Seung-ha Oh(Dongbang Graduate Univ.)

Tel: +82-10-7744-4628 email: suna6996@naver.com

Received August 19, 2014

Revised (1st September 22, 2014, 2nd September 25, 2014)

Accepted November 6, 2014

심적 기능에 박물관이 있으며, 최근 사회의 요구에 맞는 문화양성과 교육기관으로서의 박물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관람객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1].

이처럼 박물관의 역할과 문화복지서비스의 수요급증에 따른 박물관 확충정책으로, 현재 등록 박물관·미술관은 2011년 말 695관, 인구 7.3만 명당 1관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가는 상황이다.(OECD 평균 5만 명당 1관) 그리고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목적은 박물관·미술관법 제 1조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 학생, 직장인을 위한 맞춤형 체험학습 활동의 수요증가를 비롯하여 중산층의 감소와 계층간 소득격차의 확대에 따라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문화복지예술 활동의 제약, 문화향수 및 문화소비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인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에 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시행 2012.8.5) 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여가활동과 사회참여활동, 체육시설, 수련시설, 복지관, 의료재활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비롯한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관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그러나 현재 문화시설의 대부분은 일반인을 위하여 유지 운영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은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장소가 미흡하므로 장애인을 위하여 문화예술을 함께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 할 수 있다면 장애인들의 문화향수 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복지시설은 소외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3].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문화시설 중 박물관·미술관에 주목하여 장애인들이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복지의 개선방안 및 보안을 위한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4-8]과 같다.

원금옥[4]과 오혜경[5]은 박물관의 장애인을 위한 공간활용, 교육프로그램, 문화활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

와 연구를 하였으며, 인간의 기본욕구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그 내용이 변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 결과는 첫째, 장애인을 위한 문화시설의 접근과 인식개선 등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문화향유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시민 누구나 향유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즉, 현대 사회에 있어 문화적 경험으로부터의 소외는 사회적인 소외를 심화시켜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 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문화적 소외를 경험해온 대표적인 집단들 가운데 하나이며, 장애인은 기본권으로서 문화향유권을 보장받아야 함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의 필요성과 프로그램과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도적인 지원협력 체계 및 지역 장애인 문화복지 실현모델 구축, 사회적인 인식제고, 안정적인 재원확충, 문화복지 기반시설의 조성, 문화복지 공동체 형성을 위한 민간 참여의 활성화, 장애인 문화복지 정보망 구축, 문화환경 및 자원, 시설에 접근성 확대, 정기적인 문화복지 실태조사와 문화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정책개발을 요구하고 있는데 큰 의미가 있다.

박미선[6]과 윤경덕[7]은 장애인을 위한 박물관·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 사례조사 연구와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에 대한 실제 및 그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결과는 첫째, 장애인을 위한 문화시설로의 접근성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전문가, 홍보, 국가의 지원 등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의 참여는 복지적 관점을 넘어서 인권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며, 문화예술은 누구나 표현하고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 말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 현실적인 개선안의 제시 보다는 관념적이고 단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아쉬움은 있으나,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비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교육활동이 필요함을 강조 하고 있다는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무성의[8]는 장애인을 위한 문화여가 지원사업의 성과에서 문화여가 지원사업에 대한 총괄평가 중 장애인을 위한 문화여가 지원사업 평가를 중심으로 장애인을 위한 문화여가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파악하고 있다. 이 결과는 첫째, 문화 바우처사업에 가장 많이 참여했고 만족도도 가장 높았다. 둘째, 박물관·미술관 초대전시, 창작발표 지원사업에서 만족도

가 비장애인 보다 높았다. 셋째, 행복, 우울 감소, 외로움 감소,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제고, 신체적 건강 개선에서 긍정적 효과를 냈다. 넷째, 흥미 있는 프로그램과 교통편의 요구가 높았다. 이 연구는 문화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문화여가 지원사업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선행연구의 동향은 장애인들의 단편적 주제와 문화여가 및 교육프로그램, 문화예술 참여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장애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문화복지서비스의 실태와 개선방향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기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장애인관람객을 위한 문화복지전반(프로그램, 관람시설, 편의시설)의 경향을 살펴보고, 문화복지정책 수립 및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1.2 연구 문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박물관·미술관의 일반인 및 장애인 문화복지 실태는 어떠한가?
- 둘째, 장애인을 위한 관람시설의 서비스 실태는 어떠한가?
- 셋째,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서비스 실태는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박물관·미술관의 문화복지

2.1.1 개념과 기능

박물관은 영어로 뮤지엄(museum), 미술관은 아트 뮤지엄(art museum)이라 한다. 이 용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와 음악의 여신인 뮤즈(muse)의 신전을 뮤세이온(museion)이라 불렀던 것에서 유래하고 있다. 박물관이란 역사, 예술, 민속, 산업, 자연과학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하여 교육적인 배려로서 일반인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교양, 문화적 유물, 조사연구, 레크레이션, 지식의 증대, 교양강좌 등 복합적인 사회의 문화교육센터이다[9]. 이러한 박물관은 소장품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영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대학, 사립박물관 등이 있다. 영역에 따라 국립과 지방박물관이 있으며, 대상에 따라 어린이, 장애인 박물관 등이 있고, 전시방법에 따라 실내, 야외, 사이버박물관 등이 있다[10].

2.1.2 박물관의 문화복지

현대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은 사회구조의 다양화와 변화로 이제는 박물관도 소수의 특정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대중과 함께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열린 문화복지의 장으로서 그 기능이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문화적 혜택과 박물관간의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11]. 그리고 박물관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연구와 정책실현 기구구축, 사회적응 및 교육정책 마련, 교재개발, 연수 및 자료개발을 위한 전문 교육인력을 양성하여 배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2.1.3 장애인의 개념과 문화복지

장애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가 어떠한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즉, 장애의 개념은 개별 사회의 문화적 기대에 따라 다르며, 환경에 의해서도 변화할 수 있다. 이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전통적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 보건·의료, 사회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아왔다. 과거 주로 가족이나 지역을 통해 이루어졌던 장애인 보호와 지원은 경제발전과 사회변화에 따라 점차 국가 및 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동안 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복지에 대한 욕구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복지서비스도 점차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저소득 장애인을 중심으로 복지의 혜택이 증가되어 왔다. 즉, 이러한 장애인의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국민적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제는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의학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으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로 동일한 생활환경, 생활패턴, 생활형태와 리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상화 이론이 강조되고 있다[13].

2.1.4 장애인의 현황과 유형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각 년도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추정 장애인 인구는 2000년 약 1,449,496명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2,148,686명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2,683,447명으로 증가하여 지난 10년간 1,233,981명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장애인 인구는 수명연장, 노령화, 사회참여확대에 따른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증가, 등의 이유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14].

장애인의 유형은(정무성의, 장애인복지개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청각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정신신체장애(지적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자폐증)등 15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특성에 따른 욕구가 다양하다.

2.2 장애인의 관람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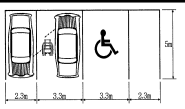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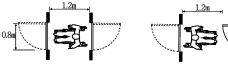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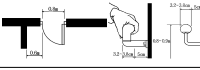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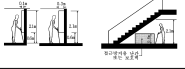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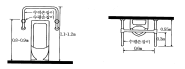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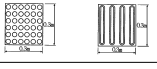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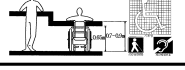
박물관·미술관의 전시공간은 스케일, 동선, 바닥·벽·천장의 건축적 요소로 이루어지며, 상설전시, 기획전시, 특별전시, 야외전시 등이 있다. 그리고 관람객을 위한 관람형식은[15] 전시실을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연속순회형식, 연속된 전시실의 한쪽 복도에 의해 각 실을 배치하는 갤러리 및 코리더 형식, 중심부에 하나의 큰 홀을 두고 그 주위에 각 전시실을 배치하는 중앙 홀 형식으로 분류한다. 세부적으로는 부채꼴, 작은방의 조합, 직사각형, 원형, 자유로운 형식 등이 있다.

장애인을 위한 관람시스템은 동영상, 3D, 스마트폰앱 등이 있다. 그리고 전자파를 이용하는 FRID, QR코드, 점자설명서, 점자블록과 점자표지판 설치 등이 있다. 그 밖에 소리의시각화, 자막시설, 시각화된 콘텐츠, 음성안내 장치 및 음성변환 프로그램, 음성지원, 문서확대기, 라이프 파이, 디지털관람시스템 등이 있다.

2.3 장애인의 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997년 4월 10일 제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동, 시설이용의 편리, 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하는 전반 설비와 시설을 말한다. 그러므로 공공건물의 하나인 박물관·미술관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관람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축·제공하고, 그 종류로는 매개(접근로·전용주차·출입구 높이차이), 내부(출입구·복도·계단 및 승강기), 위생(화장실·욕실·샤워 및 탈의실), 안내(점자블록·유도 및 안내 설비·경보 및 피난설비), 기타시설(관람석·접수대·매표소·판매·휴게실)로 분류된다.

Nine minutes	Information Display
Private parking areas	
Doors	
Non-automatic doors and handles	
Walking obstacles	
Toilet	
Urinals	
Basin	
Braille block	
Amenities front desk and Information Display	

[Fig. 1] Structure of Meeting Facilities

장애인 편의시설의 구조는 Fig. 1(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복지시설 구조·재질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1 제2조 1항 관련, 별표2 제 3조 관련)과 같다. 그리고 주요부내용으로 전용주차장은 건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 승강설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바닥면은 평탄하게 마감해야 한다. 출입문의 바닥면은 문턱이나 높낮이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자동문이 아닌 경우는 출입문 옆면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한다. 보행 장애물은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 폭은 0.1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접근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화장실의 대·소변기, 세면대는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점자블록은 0.3미터×0.3미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접수대는 휠체어를 탄 채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안내표지의 크기는 0.1미터 이상으로하고, 색상은 청색과 백색을 사용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3.1.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지붕 없는 박물관고을특구인 영월군에 소재하고 있는 공립과 사립의 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 연구지역을 한정하였다. 이 지역에서 현재 설립·유지·운영되고 있는 공립 5관 그리고 사립 16관 등 총 21관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3.1.2 조사방법

조사는 연구대상 박물관을 현장 방문하여 실태조사 및 관광을 대상으로 직접대면 하여 면접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는 면접법[16]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주체(공·사립), 설립목적의 주요내용과 특징, 현재 전반적 운영실태, 문화복지서비스의 주요내용과 프로그램, 관람시설의 현황과 형식, 장애인관련 문화복지서비스의 실태와 특징, 편의시설의 구축현황과 보완점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 실태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척도문항을 관련 이론 및 법적근거를 기준으로 객관성을 갖도록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현장조사 및 관광면접을 전수조사를 통한 사회조사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과학적 탐구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하였으며,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집단별 평균분석, 상관분석을 표본수(n)를 21로 하여 실시하였다.

3.2 연구설계와 가설

3.2.1 연구설계

연구의 설계는 박물관의 실태와 현황을 조사·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 관람시스템과 형식, 편의시설 전반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및 보완 그리고 발전방향 제시하여 장애인의 문화향유의 권리를 찾고자 한다.

3.2.2 연구가설

연구가설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서비스와 관람시설의 구축 그리고 편의시설 유·무에 따라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3.3 연구도구

3.3.1 박물관미술관의 문화복지

박물관·미술관의 척도기준은 이보아[10] 김연희[11]의 이론을 바탕으로 측정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설립주체의 공·사립 구분, 지하 및 지상의 층수로 규모파악, 설립목적의 주요사항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복지서비스 실태와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의 문화복지에 대하여 조사대상 21공·사립관의 척도는 장애인복지사업[13]을 바탕으로 측정문항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 실태와 프로그램 및 특성(영상자료, 음성지원, 터치스크린, 입체영상, 촉각체험, 점자도록, 디지털관람, 기타 다양한 체험 등)을 박물관·미술관별로 구체적으로 답하도록 하였다.

3.3.2 장애인의 관람시스템

21박물관의 조사도구는 윤천근외[15]의 이론을 기준으로 측정문항을 구성하고, 현재 설립·유지·운영되고 있는 공·사립 박물관·미술관을 분류하고, 장애인관람시스템 및 형식(연속순회, 직사각형, 작은방의 조합, 자유로운 형식, 중앙 홀형, 갤러리, 원형 등)을 파악·분석하여 측정하였다.

3.3.3 장애인의 편의시설

조사대상 21관의 박물관의 척도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1997년 4월 10일 제정 법률)을 바탕으로 측정문

항을 구성하였으며,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전용주차장, 출입구 높낮이 차 제거), 내부(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대·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탈의실), 안내(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기타(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휴게시설)등으로 구분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전반을 파악·분석하여 측정하였다.

4. 연구결과

4.1 박물관·미술관의 문화복지 분석

박물관·미술관의 설립목적과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Mission Analysis

Public	Stories	Purpose
Donggang Photo	B1, G2	Base of photo culture, famous artists and buy at photos related yumuljeon, exhibitions
Mining Culture Village	G1	Reproduce the scene of the life of the mine workers and past experience
Gimsatgat Literature	G2	Enjoy life and the literary world at a glance gimsatgat
Life History Museum	B1, G1	The life and integrity of sayuksin Life Revisited, relics and ruins
Cave saengtaegwan	B2	Creation of caves, creatures, explore the equipment and caving
Private	Stories	Purpose
Pleasure retardant art	G1	Center of contemporary ceramic art exhibitions and practical experience
Society	G1	Communicated to the public through digital technology expertise
Muksan art	G1	Korean art is the work of imsangbin brass enema and enjoy, experience
Africa	G2	A piece of Africa, household goods, jewelry, art exhibits, and experience
Media Reporter	G1	Footsteps of modern media, newspaper publication, covering state exhibits
Religious Art	G1	Torch, appearance mokjogak, yesung Exhibition and Experience
Elementary Education	G2	Textbooks, books, magazines, photos and primary education history
Fossil	G2	Fossil Paleozoic, the Mesozoic, Cenozoic Proterozoic
Indian art	G1	Work in India, the Buddha, the Hindu, the exhibition catalog
World Instruments	G2	Instruments in the world, musical performances, lectu
The Korean folktale	G1	Joseon Dynasty folktale, antique furniture, modern folk exhibits, diverse experience
Insects	G1	Gonchong domestic rare exhibition, experience
Joan banged	G1	Primary cultural tool exhibition, tea ceremony experience
Hoya Geography	G2	Geography superintendent, geographic tracking experience
Manbong fluoride	G1	Manbong relics of monks and taenghwa, fluoride works, ceramics, exhibition
Modern Art	G1	City Exhibition curator, born of the work process

박물관의 설립목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층수는 1층이 12개소, 2층 이상이 9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설립목적은 보면 11개 박물관에서는 사진문화·디지털기술·언론의 발자취·초등교육역사·화석문화·세계약기문화·우리민화·다양한곤충·차 문화·살아있는 지리교육·불교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6개 미술관에서는 도자미술·한국화·아프리카와 인도미술·종교미술과 현대미술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탄광촌, 문학관, 역사관, 생태관에서는 영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역사와 문화를 전시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박물관·미술관의 문화복지서비스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ultural welfare analysis

Public	Generally
Donggang Photo	Exhibitions, art photos tricks, international first photo, the camera experience
Mining Culture Village	Face, 19 gongtan op experience, mining town food, mining underground experience
Gimsatgat Literature	Gimsatgat grave and birthplace exploring, rubbing Experience
Life History Museum	Tomb Shrine, World Heritage trips. Photo Zone, Road of Life exile experience
Cave saengtaegwan	4D Rider, Bat ago, cave animals and ecological experience
Private	Generally
Pleasure retardant art	Ceramics, pottery experience, Deco Tile, Art Academy
Society	Digital watch, original digital education, 3D theater operations
Muksan art	Art, craft classes, printmaking dipping, two-day experience, Korean Painting Drawing
Africa	African masks, koyika Earth experience, making storybook costume Experience
Media Reporter	Town cinema, daily press experience, newspaper production, a family newspaper
Religious Art	Carving experience, creating hope sotdae, visiting museums
Elementary Education	Memories of an old classroom, low-income experiential learning
Fossil	Model fossil dig, dig three laminae experience, dinosaur eggs meteor touching experience
Indian art	Traditional Costume, Indian food, craft patterns Experience, yoga training, meditation picture. Healing Indian Culture
World Instruments	Experience playing musical instruments, creating an orchestra Mulan, Music Performance, Musical Instruments
The Korean folktale	Creating folk taking, drawing, popular folk experience, folk nameplate and liabilities
Insects	Insect stamp, insect fossils, mulbanggae, longevity hanulso experience, ladle Tour
Joan banged	Tea culture, dahwa, versatility children, rite of passage experience, education meditation ceremony
Hoya Geography	Dokdo model assembly, geographic terrain tracking, geography image Experience
Manbong fluoride	Chunghyoye education, morals succession. Country Love Writing and drawing
Modern Art	Sculpture School Experience, an outdoor sculpture park, open studio. Art prints

조사대상 21개관에서의 문화복지서비스의 실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각의 설립목적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의미는 일반관람객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해석된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복지서비스 현황과 실태를 분석한 조사지역 21박물관·미술관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Culture Welfare Disability Services Analysis

Public	Disabled
Donggang Photo	Generally, image data, headphone description, voice support
Mining Culture Village	In general, voice support
Gimsatgat Literature	Generally, image data
Life History Museum	Generally, image data
Cave saengtaegwan	Generally, the Attachments screen, stereoscopic (4D Rider), image data
Private	Disabled
Pleasure retardant art	Generally
Society	Digital watch (Visual Art + Music + Light = Watching a sound conversion system), 3D Theater Operations
Muksan art	Generally
Africa	Generally, image data
Media Reporter	Generally
Religious Art	Generally, some of the tactile experience, the video data
Elementary Education	Generally
Fossil	Generally, dinosaur eggs and touching experience of shooting star
Indian art	In general, Indian Pictures Meditation
World Instruments	In general, to Braille, touch screen, smart ponaep
The Korean folktale	Generally
Insects	Generally
Joan banged	Generally, image data, erudite experience, traditional ceremonies
Hoya Geography	In general, geographic imaging experience
Manbong fluoride	Generally
Modern Art	Generally, mokjogak classroom, tactile experience

조사대상 21개관에서의 장애인 문화복지서비스 실태 분석결과는 아직까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영상자료, 헤드폰설명, 음성지원, 터치스크린, 촉각체험, 점자도록, 그림명상, 디지털관람, 스마트폰앱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 의미는 장애인에게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4.2 장애인의 관람시스템 분석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의 관람시스템 현황과 실태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Watching System Analysis

Public	Admission form	Disabled
Donggang Photo	Continuous touring, rectangular, small number of unions, free-form	Same
Mining Culture Village	Continuous touring, free-form	Same
Gimsatgat Literature	Continuous touring, rectangular, small room	Same
Life History Museum	Continuous touring, rectangular, small room	Same
Cave saengtaegwan	Continuous touring, rectangular, round, free-form	Same
Private	Admission form	Disabled
Pleasure retardant art	Consecutive tours, galleries, a rectangular	Same
Society	Consecutive tours, galleries, a rectangular	Same
Muksan art	Continuous touring, rectangular, small room, Central Hole	Same
Africa	Consecutive tours, galleries, small room, rectangular	Same
Media Reporter	Consecutive tours, galleries, small room	Same
Religious Art	Continuous touring, rectangular, small room	Same
Elementary Education	Consecutive tours, galleries, small room	Same
Fossil	Continuous touring, rectangular, small room	Same
Indian art	Consecutive tours, galleries, small room	Same
World Instruments	Continuous touring, rectangular, small room	Same
The Korean folktale	Continuous touring, rectangular, small room	Same
Insects	Consecutive tours, galleries, small room	Same
Joan banged	Continuous touring, rectangular, small room	Same
Hoya Geography	Continuous touring, rectangular, small room	Same
Manbong fluoride	Continuous Circuit, Central Hole, Gallery, rectangular, small room	Same
Modern Art	Continuous touring, rectangular, small room	Same

조사대상의 모든 박물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관람시스템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 박물관 현장을 방문하여 관장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차원의 장애인을 위한 관람시스템 구축의 당위성과 구축지원비의 필요성을 파악하였다. 이 의미는 장애인 문화복지서비스를 위한 지속적인 관람시스템 개발과 정책적 재정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4.3 장애인의 편의시설 분석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관련 편의시설 전반을 파악하고 보완점과 문제점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Meeting Facilities Analysis

Public	Parameters	Inside	Hygiene	Information	Other
Donggang Photo	○	○,EV	○	Braille block	Wheelchair
Mining Culture Village	○	○,-	○	Braille block	Wheelchair
Gimsatgat Literature	○	○,EV	○	Braille block	-
Life History Museum	○	○,EV	○	Braille block	-
Cave saengtaegwan	○	○,EV	○	Braille block	-
Private	Parameters	Inside	Hygiene	Information	Other
Pleasure retardant art	○	○,-	×	×	-
Society	○	○,-	×	×	Digital
Muksan art	×	×,-	×	×	-
Africa	○	○,×	○	Braille block	-
Media Reporter	○	○,-	×	×	-
Religious Art	○	○,-	○	Braille block	-
Elementary Education	○	○,EV	×	×	-
Fossil	○	○,×	×	×	-
Indian art	○	○,-	×	×	-
World Instruments	○	○,EV	×	Braille block	-
The Korean folktales	×	×,-	×	×	-
Insects	×	×,-	×	×	-
Joan banded	○	○,-	×	×	-
Hoya Geography	×	○,×	×	×	-
Manbong fluoride	○	○,-	○	×	-
Modern Art	○	○,-	×	×	-

장애인 편의시설을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다. 장애인의 접근을 위한 매개시설은 21개관 중에서 17개관이 완비되어 있고 4개관이 미비 되어있다. 내부시설은 21개관 중에서 18개관이 완비되어 있고 3개관이 미비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장애인을 위한 매개시설과 내부시설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위생 시설과 안내시설은 분석결과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아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부에서 점자 블록정보만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기타시설은 극히 소수에서 휠체어와 디지털시설이 있을 뿐이다. 이 의미는 앞으로 시설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5.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복지 실태는 박물관 각각의 설립목적과 사회적 욕구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일반관람객을 위한 문화복지는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파악되었다. 이 결과는 오혜경[5]의 문화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변화와 함께 문화활동도 변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문화향유를 해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결과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이 의미는 문화향유(文化享有)의 증진이 박물관 관람객의 문화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결과와 같다. 따라서 사회의 문화욕구에 맞추어 현대박물관은 참여와 교육 및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역사와 문화체험, 여가 및 휴식을 조합한 열린 문화복지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 실태는 대부분의 박물관에서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장애인관람객을 위한 별도의 문화복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결과는 원금옥[4]의 장애인을 위한 문화시설의 접근,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일정부분 일치한다. 이 의미는 장애인관람객의 박물관 문화복지 환경이 문화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와 같다. 따라서 박물관에서는 장애인관람객의 문화욕구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문화복지 환경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을 위한 관람시스템은 구축에서는 사회구조의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사지역의 박물관에서는 일반인관람객 중심으로 관람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고, 장애인을 위한 관람시스템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현장에서의 관장들과의 면담조사 결과에서 정부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관람시스템 구축의 당위성과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박미선 [6]의 장애인을 위한 사례조사에서 접근성확대, 국가지원의 개선안 제안과 일부분 유사하다. 이 의미는 장애인을 위한 관람시스템 이 장애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관람시스템의 개발과 구축 그리고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중 매개와 내부시설은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파악되었고, 위생 및 안내 그리고 기타시설은 조사지역에서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아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결과는 강명훈, 김민영(2013)의 장애인을 위한 박물관의 편의시설에서 장애인의 접근성 유도, 법률적 규정, 지속적인 편의시설 확

층 등 일정부분 일치하고 있다. 이 의미는 모든 국민의 문화향유 및 참여의 보장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구축이 꼭 필요하다는 결과와 같다. 따라서 모든 국민의 문화향유 및 참여의 보장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구축은 법률적 규정인 설치의무대상과 관계없이 모든 박물관에 조속히 장애인 편의시설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6. 결론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의 실태에 따른 결론과 향후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관람객의 문화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에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문화향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문화복지서비스의 환경구축과 정부차원에서 관람시스템 개발 및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게 파악됨에 따라서 법률적 규정인 설치의무대상과 관계없이 모든 박물관에서 조속히 편의시설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장애인관람객에 대한 문화복지서비스 분야의 인식개선, 복지정보망, 재정적지원 등 정부지원정책수립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5] Hye-kyung Oh, "Investigation into cultural activities of the disabled",
- [6] Mi-sun Park, "Case study of Educational program in Museum and Galley for the disabled", Sookmyung Women'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Dissertation, pp.94~96, 2007.
- [7] Deok-kyoung Yoon, "The disabled's cultural art participation reality and the potential", Dance Association of Korea, Vol.29 No.3 pp.17~21, 2011.
- [8] Moo-seong Jeong et al., "Achievement of cultural supporting business for the disabled", Korean Associ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Research, Vol.12 No.1 pp.209~236, 2013.
- [9] Dong-young Lee et al., Discussion of architectural planning, SeoWoo, p 6-19, 2001.
- [10] Bo-a Lee, "Introduction of museology", Kimyoung-sa, pp.6~9, 2000.
- [11] Yun-hee Kim, Cultural Welfare Present condition of Museum", pp. 32~33, 2013.
- [12] Rychen, D. S, & Salganik, L. H.(2003).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Hogrefe and Huber.
- [13] Yong-chan Byun, "Welfare business for the disabled",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http://encykorea.aks.ac.kr/>, 2014. 8. 11.
- [14]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for the disabled 2011".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27, 2011.
- [15] Cheon-geun Yoon, "Construction Plan", Kimoon-Dang, pp.274~276, 2005.
- [16] Seok-jo yoon,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elfare" p.47, Gongdongchae, 2012.

References

- [1] Bo-sam Jeon, "2013 Museum·Art gallery Education Academy", The Korean Museum Association, p.9~10, 2013.
- [2] Bong-soo Hong, "Social Welfare Policy", Gongdongchae, pp.304~305, 2012.
- [3] Byung-hwa Yoon, "Museum Exhibition for the Blind", General Assembly of The Korean Museum Association 2012, Korea Culture & Tourism Welfare Association, p.33, 2012.
- [4] Guem-ok Won, "Educational program and Space usage in Museums for the disabled", Chungang graduate school of art, Master's Dissertation, pp.100~106, 2003.

오 승 하(Seung-ha Oh)

[정회원]



- 2012년 2월 :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 2012년 3월 ~ 현재 :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 사회복지상담 (박사과정)
- 2012년 3월 ~ 현재 : 세경대학교 미술치료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한부모가정, 노인의 성, 노인상담

조 성 제(Sung-Je Cho)

[정회원]



- 1977년 2월 : 홍익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이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문화콘텐츠 개발, 정보보안